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멸망의 도시에서 죄의 짐을 지고 살던 사람에게 전도자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천로역정의 한 장면

제246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 WAY NEWS

주후 2025.4.6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제자로서 세상속에서 산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협력목사: 김홍현
전임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C G/B Am7 C/G F A7/E Dm7 G7 C G/B Am7 C/G Fmaj7 G7 C

주님의 성 - 령 지금 이 곳 에 임 - 하 소 서 임하 소 서

Am7 Em7 F G/F Em7 Am7 Dm7 G7 C Am7 F G7 C

할렐 루야 할 - 렐 루야 할 렐 - 루 - 야 할렐 루야

성서교독 시편 1편 다같이

인도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성도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인도자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도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도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도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인도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어

성도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인도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건디지 못하며

성도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참회기도..... 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 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 주안에서 거듭난 생명,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응답

말씀읽기.....요한복음 3:1-21.....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 나눔..... 이길주 목사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인도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 보냄받은 곳에서 주님 주신 은사로 사역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말씀묵상

모임을 시작 전, 안내 사항을 한 사람 씩 교대로 읽고 시작하십시오.

1.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교훈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2. 이번 주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3.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4. 오늘 주신 메시지를 통해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결심했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5.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듣기 원하는 내게 말씀해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6.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도록 중보하며 참가하십시오.

1. 니고데모는 율법과 종교에 능통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어떤 기준(지식, 경건, 전통 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 3:1-10)
2.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나누어보십시오. (요 3:5-8, 14-17)
3. 예수님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빛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기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까? (요 3:19-21)

성경말씀 새한글성경

(요한복음 3:1~21, 새한글성경) (1)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2)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랍비님, 우리가 알기로 랍비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랍비님이 몸소 행하시는 이런 징표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요.” (3)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4)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말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7)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요. (8)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9)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10)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11)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12) 내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그대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13)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말고는요.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15)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 심판이란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들이 악했기 때문이지요. (20) 못된 짓을 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 가까스로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 일들이 들추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21)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빛 가까스로 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지요.”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전임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이건명
		교육전도사	김상진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탄핵인용 감사

12.3 계엄을 시작으로 혼란했던 대한민국 상황이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이 있기까지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사회안에 새겨진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분별하고 사랑의 가치위에 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요한복음 성경통독

내일부터 새한글성경으로 <요한복음> 7장부터 성경통독 시작합니다.

방식: 매주 월~토까지/ 하루에 1장 읽기

2차 소그룹 모임은 오늘 쉽니다

오늘 오후 심방 관계로 오후 소그룹 모임은 쉽니다. 다음주에 진행됩니다.

길목교회 예배당 이전 중보

길목교회가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월한 길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길목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나라의 아름다운 연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중보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주세요

- 40평이상(이보다 작으면 모이기 힘듭니다ㅜㅜ)/ 주차편리(멀리서 차로 오시는 분이 많습다)/ 인테리어 되어있으면 좋음(인테리어비용이 추가로 들고 비쌉니다...)
- 6월 마지막주 5주년 기념예배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드릴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일(4.20) 특순

이건명 전도사님의 해금 연주

교육부서 신앙고백 특순

중창단 특순 (정지혜 외)

식사섬김

4.6- 여성은,천호림 / 4.13 천선영 집사

식사 섬김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실수 있습니다. (1-교회에서 준비/전체비용15만원정도 소요(김밥으로 준비)/ 2-개인이 원하는 메뉴로 직접준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섬김으로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권종신 사모님께 신청해주세요.

오후 가정심방

오늘 주일오후 나눔후에 여성은사모, 천호림목사 가정심방을 갑니다. 오후2시 출발예정입니다.